



1. 전시개요

전시제목	《보이지 않는 구조》
작가명	정은주, 김병주
일정	2026. 04. 24 - 05. 19
전시장소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제니스 스퀘어 A타워 608호
관람시간	화 - 토 (오전10:00 - 오후18:00)
보도자료관련문의	갤러리 서린스페이스 (이정은 큐레이터) 051 742 7422 gallerieserene@gmail.com www.instagram.com/gallery_serenespace www.gallerieserenespace.com

2. 전시내용

오늘날 우리는 견고한 콘크리트와 정의된 색채로 둘러싸인 도시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체라고 믿는 이 물리적 세계의 이면에는 지각되지 않는 무수한 층위와 개인의 무의식이 투영된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존재한다. 전시 《보이지 않는 구조》는 현대 회화와 조각의 본질적 조형 언어를 탐구해 온 정은주와 김병주, 두 작가의 작업을 통해 가시적인 형태 너머에 은닉된 존재의 본질과 인식의 경계를 심도 있게 조명한다.

정은주의 작업은 형상을 소거하고 본질적인 색채의 중첩만으로 화면을 구축한다. 작가의 <Untitled> 시리즈는 단번에 파악되는 시각적 해답을 거부하며, 오히려 그 '불친절한' 공백을 통해 관객의 정신이 개입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장(field)을 마련한다.

작가가 독일 유학 시절부터 천착해 온 '선의 교차'와 '면의 쌓임'은 단순한 기하학적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인고하며 보낸 시간의 퇴적물이며, 융(C.G. Jung)이 말한 '살아있는 상징'으로서의 색면이다. 수천 번의 수행으로 완성된 정은주의 목재 반입체 조각은 관객 각자의 생애사적 기억을 낚아 올리는 낚시바늘이 되어, 고정된 의미에 갇혀 있던 색채를 개인의 내면과 공명하는 유동적인 기표로 탈바꿈시킨다. 이로써 정은주의 평면은 보이지 않는 기억의 구조를 시각화하는 수행적 공간이 된다.

반면 김병주는 철제의 선(line)을 이용해 현대 건축의 구조적 골조를 3차원의 공간 속에 직조해낸다. 그의 조각은 안과 밖, 실체와 허상, 채움과 비움이라는 이중적 가치가 공존하는 모호한 경계점을 탐구한다. 가상의 그리드(grid) 속에 재구성된 그의 건축적 구조물은 관람자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조합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조형물 자체가 점유하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빛에 의해 생성된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2차원의 환영적 공간이다. 강철의 선들이 빚어낸 3차원의 실체와 벽면에 투사된 2차원의 그림자는 서로 맞물리며 전시장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교란한다. 김병주의 작업에서 건축물은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빛과 시선이 관통하는 열린 구조가 되며, 그 사이를 흐르는 시간과 기억의 잠재성을 현실화한다.

《보이지 않는 구조》에서 두 작가는 서로 다른 매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작품 완성을 위한 필수적인 주체로 관객을 소환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정은주의 색면 너머에서 발견하는 유일한 기억이 작품의 마지막 붓질이 된다면, 김병주의 모호한 그리드 사이를 거니는 관람자의 가변적인 시선은 보이지 않는 공간의 마지막 구조를 형성한다.

이번 전시는 견고한 일상의 표면 아래 숨겨진 심리적, 물리적 구조들을 반추하는 사유의 장이다. 관람객은 익숙한 도시의 파편들과 색면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구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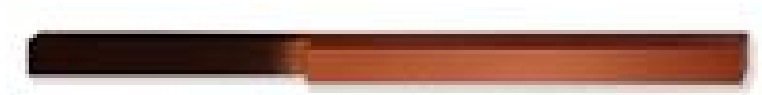


ABOUT. 정은주 Jeong Eun-ju (b.1964)

1964년생인 정은주는 계명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독일 브라운슈바이크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수학했다. 서울, 일본, 독일 등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다수의 개인전('Into The Color', '숨' 등)과 아트페어, 그룹전에 참여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재 대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Dartist'로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은주의 작업은 '선'과'면'의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수만 번의 반복과 교차로 이루어진 화면은 수행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시간의 층위이자 존재의 증명이다. 이 정교한 색면세계는 기하학적 형식을 넘어 관람객과 마주하는 순간 살아있는 상징으로 거듭난다.

작가는 평면과 입체, 미니멀리즘과 추상 사이의 '사이 공간'을탐구하며 인지의 확장을 유도한다. 특히 평면이 입체적 깊이로 전이되는 찰나의 감각은 고착화된 시각적 관념을 깨뜨린다. 강렬한 보색 대비와 조화로운 색조의 운용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인간 내면의 복합적인 감정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한다.



Brown

정은주
203x15x5 (cm)
Acrylic on Wood
2026



Green, Pink

정은주
203x15x5 (cm)
Acrylic on Wood
2026



White, Blue

정은주
203x15x5 (cm)
Acrylic on Wood
2026



Yellow, Orange

정은주
203x15x5 (cm)
Acrylic on Wood
2026



Ivory, B-blue

정은주
26x26x6 (cm)
Acrylic on Wood
2026

Blue, 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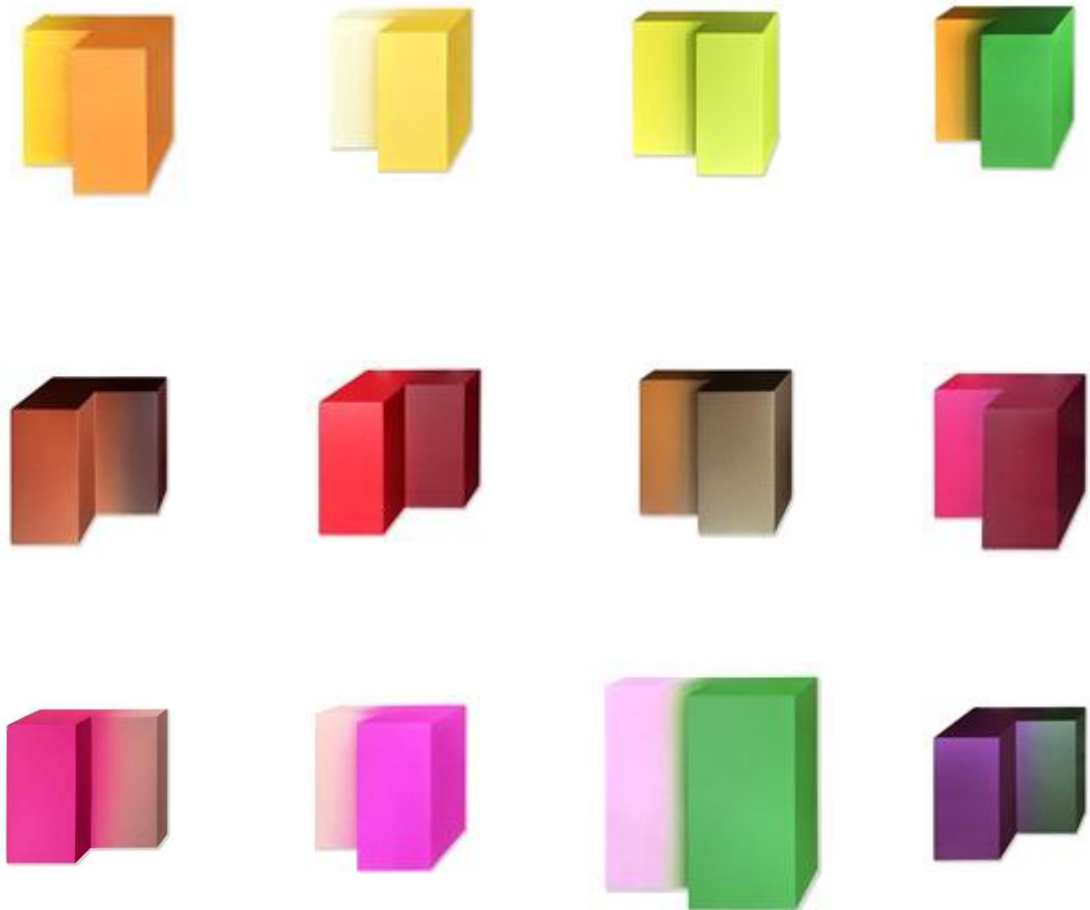
정은주
26x26x6 (cm)
Acrylic on Wood
2026



Pearl, Sky-blue

정은주
23x26x6 (cm)
Acrylic on Wood
2026





정은주
Acrylic on Wood
2026

정은주의 작업은 한 마디로 평면이기를 거부하고 입체이면서 입체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 평면이 평면일 수 있는 것은 시간에 무관한 공간의 절대성인데 그의 평면은 이런 평면공간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있다. 입체를 지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시간이 개입된다. 시간에 의해 그 공간성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고정되었다 해도, 본다는 혹은 움직인다는 운동감이 없으면 입체 공간은 그 면모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이 속성들을 피해가면서 평면과 입체가 가질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미 단색조의 작업을 혹은 미니멀한 개념성이 강한 작품에서 이런 시도들이 없지 않아 미니멀리즘의 영향이나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이 물성에 대한 관심이라면 정은주는 색상의 변화가 줄 수 있는 공간의 변화와 구조, 그것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른 색상 변화의 가변성과 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진실성에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우선 평면적인 색상, 구성적인 색면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감한 색상감과 공간간의 상대적 크기가 주는 힘의 자장 관계, 그리고 색상간의 반발과 수용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동일계열이거나 대비적 색상감을 이용해서 이들 구조들이 반응하게 한다. 보는 이는 이 미묘한 공간과 색상 사이에서 절대성, 어떤 사물에도 매이지 않는, 어떤 현상이나 이야기에도 매이지 않는 순수성을 만나게 된다.

느닷없이 한 공간에 놓인 색상들은 그 공간의 크기와 주변 공간간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성에 대한 민감의 요구는 사실 세련된 감성이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한 도도함에 다르지 않다. 추상이라는 이름의 모더니즘적 이해로는 더 이상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사실 그것만 바라보기를 강요하는 화랑이나 미술관 안의 정제된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몸을 움직여 이 작품들을 보게 되면 당장에 그 색상과 모양과 느낌이 달라진다.

착시효과와 함께 시선이 만드는 실제적 공간의 왜곡이 나타나고 그 왜곡은 원래의 작품과 상관없이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준다. 인간이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움직이면서 사물을 보게 되고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정면에서 서서 바라보는 그 순간만이 이 작품에 대한 순정이고 진실이고 사실인가. 정면이 아니면 이 작품은 진실이 아니며 가짜나 다른 작품을 보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 눈은 사진기처럼 한 방향에서만 보게 된 것을 진실로 받아 드리는가. 그러면 다른 방향의 시선들은 거짓인가. 그의 작품은 이런 물음을 던져 준다. 만일 평면에서처럼 언제나 일시점에서 보기를 요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지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배제된 것에 익숙한 타성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인식이 문화현상 전반에 대한 시점으로 확장되면 우리는 그런 조정된 삶에 함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으로 다시 이어진다. 이런 물음으로 그의 작품을 해석하려 들면 그의 작품의 외연은 사회학적 이해로까지 넓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조형적 요소만으로 한정한다. 그의 작품을 색면추상이나 변형된 입체적 감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 족한가. 그의 작품에서 해석될 것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순수한 조형의식 그것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선에서 한정하고자 한다.

그런 질문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몸을 움직여 작품을 보는 것이고 눈은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본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본다는 것에 충실할 수 있는, 본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평면에 시간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런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작업이다. 그리고 그의 특징이다. 내가 미니멀리즘 경향과 다른 점을 보았다면 이런 점이다. 그는 비로소 평면의 독재와 본다는 것에 대한 우리 시각의 안이함에 대해 조용히 반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평면에 칠하는 바탕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곳(지구하는 행성)에서 평면, 절대 평면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평면이란 개념적 이해나 수용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입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평면의 속성을 긍정해버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곧 색상이 놓이는 평면공간에 대한 절대성 부정이다. 그리고 그 동안 해왔던 작업 연장에서 입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다. 엄밀한 평면구성의 화면은 입체적인 구조에 놓이게 되고 그가 구사한 공간은 일대 변화를 가져온다. 흰색과 검은색과 노랑과 파랑의 대비는 그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색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유동적 생명체가 된 것이다.

절대적인 고정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다르게 모습을 나타내는 유기적 존재로 바뀐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작가의 의지로부터도 자체의 색상이나 형태로부터도 독립된 하나의 자율적 존재, 의미와 내용에서 자율성을 가진 존재의 경험으로 바뀐 것이다. 방형의 평면은 방형의 입체로 그리고 고정된 공간에서 유동의 공간으로 바뀌고 조합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점의 변화이기도 하다.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짙고 옅은, 동일색이거나 대비색을 가진 입방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하나의 집성체를 이루고 그것이 한 작품이 된다. 물론 이것들은 요소로서 분절되기도 하고 접합되기도 하는 유동성을 가지는 구조적 성격을 갖는다. 이 접합 구조의 가능성은 그의 작품을 일신하게 한 중요한 계기이고 요소이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물론 이 특징은 그의 작품세계의 형식과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한 시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요구하고 움직임에 따라 색상과 형태가 달라진다. 그다음은 근본적으로 한 작품의 원본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스스로 다양성으로 혹은 관계성으로 방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이 작품의 면모를 만나게 된다.

그 형태와 색상과 힘의 자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현실적 형성으로부터 벗어난 색상과 형태와 빛의 움직임에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본성의 부정이라는 특징은 그의 작품을 순수한 조형적 의미로만 묶어두지 않는다. 그것은 더 많은 의미를 찾아 갈 수 있는 통로를 연 셈이다. 조형에서 사회문화적 의미까지 혹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존재론적 질문에까지 닿아있다. 나는 그런 맥락을 그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작품이 가장 비사회적일 때 보다 심각한 사회적 의미를 띠 수 있고 그런 해석이 가능한 다는 것으로 조형이라는 맥락에만 묶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은주 Jeong Eunju

1964년 대구 출생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Department of Painting and Graduate School
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 Braunschweig, Germany, and Graduate School
Diplom, Meisterschueler- Prof. Walter Dahn, Prof. John Armleder

Awards

1998 DAAD KontaktScholarship
2003 Selected as This Year's Young Artist

Collections

Seoul Museum of Art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ChoongwaePharma
The Paris

Solo Exhibitions

2025 조은숙갤러리, Seoul
2025 동원화랑, Daegu
2024 동원화랑, Daegu
2022 갤러리 올, Daegu
2021 대구미술관, Daegu
2020 PNC gallery, Daegu
2020 PNC gallery, Seoul
2019 galleryB, Seoul
2017 동원화랑, Daegu
2016 갤러리서린스페이스, Busan
2014 갤러리 소현\$소현컨템포러리, Daegu
2014 갤러리서린스페이스, Busan
2013 Secret of Color, Gallery Jeon, Daegu
2011 Memory Workshop - Tetris, BongsanCultural Center, Daegu
2011 Into the Color, Artpark, Seoul
2010 Colors Refusing Objects, Cyan Museum of Art, Yeongcheon
2009 JEONG EUNJOO Solo Exhibition, Han KisookGallery, Daegu
2006 JEONG EUNJOO Solo Exhibition, BIBIspace, Daejeon
2004 JEONG EUNJOO Solo Exhibition, Gallery M, Daegu
2004 ManifSeoul 2004, Seoul Arts Center - HangaramArt Museum, Seoul
2003 2003 Invitational Exhibition of This Year's Young Artists,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2001 Daesan Forum Planning Invitational Artist Exhibition, SigongGallery, Daegu
1999 DannenfeltBrasserie, Braunschweig, Germany
1998 ExheimerHerrseebergMuseum, Vatenstedt, Germany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4 Surface:Stories, 어컴퍼니, Busan
- 2021 현대미술의 시선,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 2020 각각의 색, 예술발전소, Daegu
- 2019 사월애전, 동원화랑, Daegu
- 2018 미니멀변주, 서울대학교 미술관, Seoul
- 2018 Female Artist in our Time, 포항시립미술관, Pohang
- 2017 한국미술의 풍경전, 금산갤러리, Seoul
- 2017 서사와형식, 킨텍스, IlSan
- 2017 영남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신세계갤러리, Daegu
- 2016 Art LAB, 신세계갤러리, Seoul
- 2016 미술은 게임이다, 수원아이파크시립미술관, Suwon
- 2016 대구미술아우르기, 수성아트피아예술의전당, Seoul
- 2015 한국현대미술초대전,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 2014 시간 그리고 표현, 봉산문화회관, Daegu
- 2013 강정간다, 강정대구현대미술제, 디아크, Daegu
- 2012 ThePower,한기숙갤러리, Daegu
- 2012 Welcome Everyone, 포항시립미술관, Pohang
- 2011 100인 100색전, 서울시립미술관, Seoul
- 2011 자연의 현상, 환경미술전, 마산아트센터, Masan
- 2010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IAF 2010 (Gallery Artpark), COEX, Seoul
- 2010 Christmas Small Works Exhibition, Gallery M, Daegu
- 2010 Seeing is Believing - JEONG EUNJOO, KIM ARAM, Soul Art Space - HaeundaeBranch, Busan
- 2010 Daegu Art Fair - Gallery G, EXCO, Daegu
- 2010 Next-Generation Women's Art Exhibition,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 2010 Inside Out - Uncovering Contemporary Art, BongsanCultural Center, Seok Gallery, Daegu
- 2010 The Story of Spring, Gallery G, Daegu
- 2009 Young Artists Project, KT&G Annex, Daegu
- 2009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IAF (Han KisookGallery), COEX, Seoul
- 2009 8 Artists, YFO Gallery, Daegu
- 2009 Galleries Art Fair (Han KisookGallery), BEXCO, Busan
- 2009 Painted Painting, Artpark, Seoul
- 2008 Galleries Art Fair (Han KisookGallery), EXCO, Daegu
- 2007 Embracing Daegu Art, SuseongArtpia, Daegu
- 2007 Open 2007 Studio Festival, Bongsan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 2006 Galleries Art Fair (YewonGallery), Seoul Arts Center, Seoul
- 2006 The Color of Square, Gallery M, Daegu
- 2005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IAF 2005 (SigongGallery), COEX, Seoul
- 2005 The Second BOX show, Gallery M, Daegu
- 2005 6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Invitational Exhibition, Cyan Museum of Art, Yeongcheon
- 2004 Exhibition of 6 Artists Highlighted in 2004, Gallery Siseon, Seoul
- 2004 New Frontier & Citizen Art, WolgokHistory Museum, Daegu
- 2003 The Box Show, Kita Gallery - Japan Touring Exhibitio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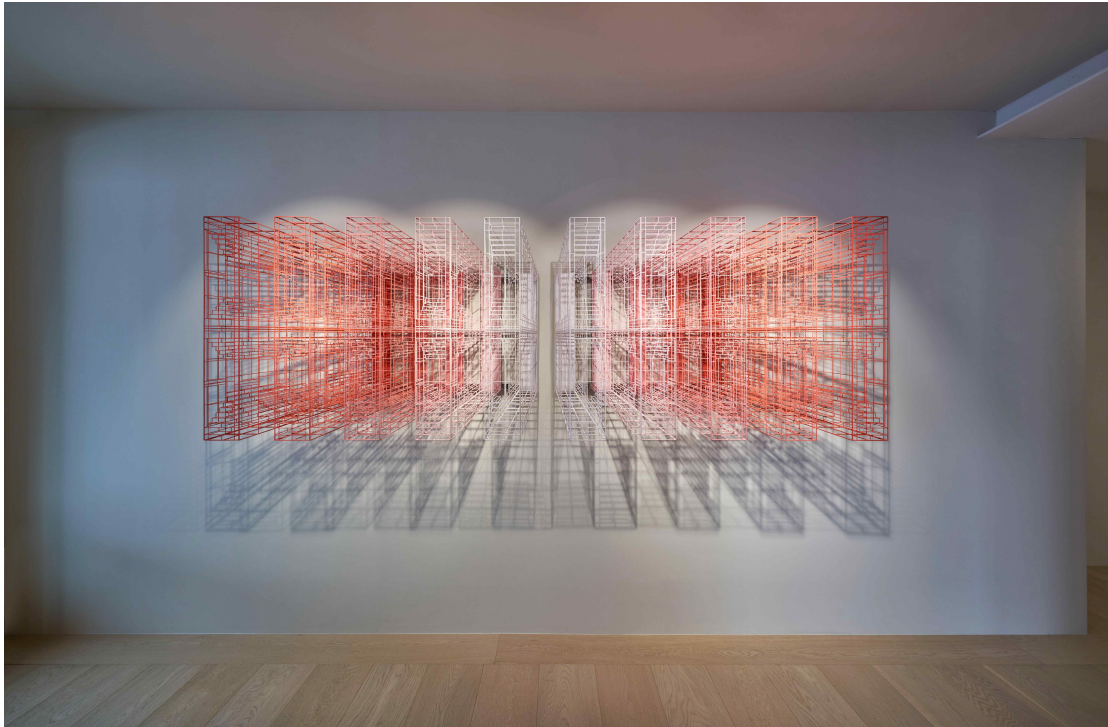


ABOUT. 김병주 Kim Byung-joo (b.1979)

김병주(b.1979) 작가는 단허 있는 사물함과 같은 소규모 오브제를 비롯하여 건물과 같은 건축적 구조물의 드러나지 않는 내부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작업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그는 스틸(Steel)로 만들어진 직선들을 조합하여 건축물의 내외부형상을 부조나 환조의형식으로 구현하며, 이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내부 공간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 안과 밖의 모호한 경계를 허물어낸다.

김병주가 작품을 통해 탐구하는 내부 공간을 드러내는 작업은 단순히 안과 밖의 구분을 흐릿하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작가는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를 통합하고 초월하는 새로운 공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의 작품은 물리적인 공간을 재해석하고, 관람객들이 건축적 구조와 그 너머의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작가는 재료와 형태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스틸이라는 소재의 속성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한다. 스틸의 단단함과 직선의 기하학적인 조형성을 바탕으로, 작가는 작품에 안정감과 균형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섬세한 디테일과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김병주의 작업은 건축과 조각의 경계를 탐구하며, 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Ambiguous wall-Symmetry R5104 1;3

김병주

77x244x20 (cm)

Laser cut steel, Urethane paint

2023



Ambiguous wall-Facade#0517

김병주

80x80x12.5 (cm)

Laser cut steel, Urethane paint

2022



Ambiguous wall-Complex #0302

김병주

80x80x12.5 (cm)

Laser cut steel, Urethane paint

2023

“실체와 허구 넘나들며 무한한 순환으로 몰입하게 이끌어 모호함과 이중성으로 익숙한 장면 드러내지만 낯설 내포.”

도시에서 살며 일하는 사람들은 건축을 통해 도시공간을 본다. 특색있는 건축물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고, 큰 건물들은 매일 매일의 출퇴근을 통하여 사람들이 들고 나오며 일하는 생활의 장소이다. 도시 건축물들은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의 하나로 도시 공간을 특징짓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다.

김병주의 작품은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조각 작품으로 공간을 탐구한다. 2차원의 평면에 그려지는 회화와 달리 3차원의 공간에 구현되는 조각의 특성상 조각은 기본적으로 실제 공간을 점유하는 특성을 지닌다. 김병주 작가의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작품은 단지 작품이 공간을 점유해서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깊이 있게 연구해 도시 공간과 공간을 점유하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시적 공간, 원근법적 시점을 탐구하는 공간 등 여러 공간을 보여준다. 대학 시절부터 건축적인 이미지에 매료되어 건축 잡지 등을 많이 봐왔다는 작가는 공간과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공간의 경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학부 졸업 작품으로 철망으로 캐비닛을 재현하는가 하면, 나무 박스를 만들어 물건을 넣은 다음에 접착제를 넣어 닫힌 공간을 절단해서 잘린 면을 보여주는 초창기 작업 등 김병주의 작업은 닫힌 공간과 열린 공간, 폐쇄된 공간과 노출된 공간 사이의 경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물의 골조 혹은 건축 설계도의 입면도처럼 보이는 작품들은 초기에는 색을 최대한 배제하여 주로 흰 벽인 전시 공간을 점유하는 건축적 드로잉이다. 이는 아크릴선, 털실 등 가느다란 선을 공간에 팽팽히 설치해 조각과 공간의 관계를 연구한 프레드 샌드백(Fred Sandback)의 공간 드로잉이나, 하얀 입방체(white cube)라는 이데올로기 공간으로서의 갤러리 공간을 비판하기 위한 브라이언 오도허티(Brian O'Doherty)의 공간 드로잉 등 1960~1970년대 미니멀리즘 및 개념미술의 공간 드로잉과 그 연관성을 두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공간의 건축물을 주제로 삼음으로써 훨씬 더 친근하고 익숙하게 다가온다.

김병주의 건축적 공간 드로잉은 그 자체로 건축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조각 작품이자 보통은 채워져 있는 건물들을 비워냄으로써 전시 공간에 그려진 드로잉이기도 하다. 또한 전시장의 빛을 따라 그림자가 생겨나게 되어 또 하나의 그림자 투시도가 전시장 천장과 바닥에 생기게 된다. 3차원 공간 속의 드로잉(건축적 작업)과 2차원 벽면 및 바닥 속 드로잉(그림자)과의 맞물림으로 친근한 건축적 이미지들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으로 서있다. 마치 우리의 그림자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것처럼 말이다. “그림자가 다른 건물에 맺히고 서로 다른 건물의 그림자들이 뒤섞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낸다. 마치 격자의 모눈종이에 그려진 평면도가 고층빌딩의 거대하고 복잡한 공간을 종이 한 장에 담고 있듯이 전시장 안의 모든 공간들은 경계가 허물어져 그림자로 응축되어 벽면에 그려진다.” 작가가 설명하고 있듯이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하게 채워져 닫혀 있다고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도시 건축물들은 작품 속에서 선으로 표현되어 열리게 된다. 이로써 밖의 공간과 안의 내부를 동시에 드러내어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러한 모호함은 그림자로 인해 또 다른 환영적 공간을 선사하는 것이다.

작품은 이렇듯 공간의 안과 밖, 실체적 작품과 허구적 그림자, 채워있는 건축물과 비어있는 외곽선 등 이중적 세계를 동시에 제시하며 확실성과 모호함을 넘나들고 있다. 따라서 김병주의 작품들은 우리가 몸 담고 있는 도시를 작은 건축물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 속을 비워내고 관람 위치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보이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인 공간, 시점에 따라 다른 공간을 열어놓고 있다. 또한 건물의 외곽선 뿐 아니라 비계(飛階), 계단, 층계참 등 건축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 판화 속의 무한한 순환의 계단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작품 밖과 안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다.

공간의 경계와 공간의 중첩됨을 탐구하던 김병주 작품의 최근작은 점차 보는 사람의 시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작품에서 드러나는 도시 공간,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시적 공간, 원근법적 시점을 탐구하는 공간은 거울을 이용하여 작품 외부의 관람자의 시선을 작품 내부에서 반사시킴으로써 빛의 반사를 통한 파편화된 시선과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건축물에 닿기 전에 빛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의 설명처럼 건축물을 주요 모티브로 하는 김병주의 작품에서 빛과 시선은 김병주의 건축적 구조물에 닿아 닫혀있는 공간을 열고 그 모호한 경계를 드러내며 익숙하게 혹은 낯설게 우리에게 그 존재를 알려준다.

김병주 작품의 제목은 도시 공간을 지칭하고(), 시점을 탐구하며(), 실제 벽체가 아닌 선으로 만든 모호한 벽()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로만 씌어진 작품의 제목은 작품을 설명함과 동시에 작품의 모호함과 이중성을 대변하며 있다. 제목은 ‘익숙한 장면()’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낯설을 내포하고 있으며, ‘빈 공간()’을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작품이 이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눈에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되는 이중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열거하고 계산할 수 없는 ‘비어있음’이란 개념을 표현함으로써() 그 모호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잠재적인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충만한 실재성을 소유한다”며, 잠재적인 것은 실재적인 것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캐비닛을 시작으로 건축물 일부, 작은 건축물, 향후 도시까지 작품의 모티브를 점점 더 큰 도시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김병주의 작품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과 작품이라는 허구, 물리적 작품이라는 사물과 그림자 그리고 거울에 반사되는 빛이라는 허상, 공간의 안과 밖을 경계하는 벽과 이를 노출시키는 선 사이의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살고 경험하고 느끼는 도시 공간 속 건축물들을 재현하고, 모호하게 하고 이중화하는 김병주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공간이 가진 잠재성을 본다. 그리고 그 잠재성 속에서 우리는 도시 공간이 가진 다채로운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 익숙하지만 낯선 곳에서처럼.

전혜정 미술비평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2로 33 제니스 스퀘어 A타워 607호, Zenith Square A Tower 607, 33, Marine City 2-ro, Haeundae-gu, Busan. T.+82 51 742 7422 E. galleryserene@gmail.com

김병주 Kim Byungjoo

1979년 서울 활동

Education

Ph.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HongikUniversity, Seoul, Korea

MFA in Fine Arts, Chelsea College of Arts,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AL), London, UK

MFA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HongikUniversity, Seoul, Korea

BFA in Sculpture, HongikUniversity, Seoul, Korea

Awards & Residence

2014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2009 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 (NArT2009) 선정작가

2008~2009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3기 입주작가

2008 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데뷔프로그램 선정

2007POSCO Steel Art Award (주최:포스코청암재단)

Collections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2)

국립익산박물관(IksanNational Museum)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MMCA) Art Bank)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 (SeMA))

포항시립미술관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MA))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사 (YeongdeungpoMarket Station, Subway Line 5)

임피리얼팰리스호텔 (Imperial Palace Seoul)

전국경제인연합회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롯데호텔 (LOTTE HOTELS & RESORTS)

IBK 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IBK))

Solo Exhibitions

2024 Records of boundaries _ YZHQ

2023 The Web of Time 시간의 그물 _ 아트스페이스 호화

2023 빛의 감각, 구조를 경험하다 _ ArtcodeGallery

2022 Ambiguous wall _ 갤러리 히든스페이스

2022 FOCUS _ Galerie LeRoy, 캐나다

2022 Ambiguous wall _ 최정아 갤러리

2021 Wall of Imagination _ 프린트베이커리더현대서울

2021 Ambiguous wall _ 아트딜라이트

2020 Ambiguous wall-Eidos _ 가나갤러리 한남

2019 Ambiguous wall _ Print Bakery 삼청

2017 Ambiguous wall _ 최정아 갤러리 기획전

2017 Ambiguous wall _ 63스카이 미술관

2016 The Paradox of Space _ 분도 갤러리 기획전 _ 대구

2015 Ambiguous Wall-The Marriage of In and Out _ Gallery Huue, 싱가포르

2014 BYUNGJOO KIM _ Coohausart, 뉴욕, 미국

2014 "Familiar scene" _ 표갤러리 사우스기획전

2013 "From the spot" _ TV12 갤러리

2012 "Twofold Line" _ 살롱드에이치기획전

2010 "Enumerated Void" _ 노암갤러리 기획전

2009"Ambiguous Wall" _ 쿤스트라움갤러리 기획전

Group Exhibitions

- 2025 Steel scape _ 갤러리 아이엠
- 2025 빛결, 물결, 삶결A Sunlit Stream of Life _ 서울시립미술관, 양천문화회관 전시관
- 2025 Here I am, 현대를 살고있는나에게 _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2024 슈퍼컬렉터전 _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2024 Ambiguous Parallax _ 갤러리 조은
- 2024 희미한 그러나 선명한 _ N gallery
- 2024 이상하고 재미있는 () _ 신세계갤러리 대전
- 2024 See Through _ 리나갤러리 부산
- 2024 TEXTURES _ GalleieLeRoyerk캐나다
- 2023 PARAPARA _ 더스퀘어
- 2023 뿌리의 형태 - 나의자리 _ 라훤갤러리
- 2022 ART MIAMI _ 마이애미, 미국
- 2022 ART DIVE _ 프린트베이커리판교
- 2022 Borderless Universe _ 갤러리 비케이
- 2021 소품락희_ 갤러리 조은
- 2021 ART MIAMI _ 마이애미, 미국
- 2021 Ensemble at Hannam3rd _ 갤러리조은
- 2021 내일의 작가, 행복한 꿈 _ 노화랑
- 2021 ColourfulPower _ 청주시립미술관
- 2021 현대미술의 시선 _ 양평군립미술관
- 2019 아트월프로젝트 서울산수 _ 서울시청
- 2019 술이불작_ BNK아트갤러리, 부산
- 2019 Encounter _ 표갤러리
- 2019 홍콩 ART Central
- 2019 불혹, 미혹하다 _ 갤러리조은
- 2018 소품락희전 _ 갤러리조은
- 2018 바다海 _ 갤러리조은
- 2018 아트부산
- 2018 불혹, 미혹하다 _ 갤러리조은
- 2018 화랑미술제
- 2017 Anti-Art Museum Show: 반(反) 하다 _ K 현대미술관
- 2017 Rip Tide _ N gallery
- 2017 L.A. ART SHOW _ Los Angeles Convention Center
- 2016 Harmony of Materials _ 소피스갤러리
- 2016 덕수궁 속의 현대미술 '궁' 전 _ 덕수궁
- 2016 Arithmetic _ 세움 아트스페이스
- 2015 2Gil-김병주, 강준영 2인전_ 2길29 갤러리
- 2015 The trace of line-김병주, 장재철 2인전_ 최정아 갤러리
- 2015 도시 樂2, Rock- 성남의 얼굴 2015 _ 성남아트센터
- 2015 제2회 장애인 창작아트페어특별전 _ 문화역서울284
- 2015 아트로드 77 _ 장미갤러리. 헤이리
- 2015 TOUCHING MOMENTS IN MACAU THROUGH ARTISTS' PERSPECTIVE _ 인사아트센터
- 2015 Home Scape _ 집에 대한 단상 _ 롯데 갤러리-안양
- 2015 The good life-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들 _ 세움아트스페이스
- 2015 공간탐구-김병주, 이강욱 2인전_ 리나갤러리
- 2014 새로운 시선 _ S+ 갤러리, 부산

2014 ART MIAMI contaxt
2014 Affordable art fair 싱가포르
2014 대구아트페어
2014 SOLIPSISMOS _ ETHRA Gallery, 멕시코시티, 멕시코
2014 WOW ARTSHOW _ Crossing 360 Gallery, 뉴욕, 미국
2014 새로운 시각 _ 최정아 갤러리
2014 청년예술 100 _ SZ ART Center, 베이징, 중국
2014 20th CONTEMPORARY ART JAPAN & KOREA _ KUBOTA Gallery, 도쿄, 일본
2014 2014 한국기초조형학회 파리 국제기획 초대작품전 _ 한국문화원, 파리, 프랑스
2014 선으로 공간을 그리다-김병주, 황성태2인전_ S+갤러리, 부산
2014 공간을 점령하라 _ 갤러리 정미소
INTRO 전 _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014 ART&LIFE_예술과 가구의 만남 _ 아트스페이스 벤
2014 Unexpected moment _ 보고제갤러리
2014 Space:Life&Routine_ 최정아 갤러리
2014 화랑미술제 _ 코엑스
2014 Line-drawing 선을치다_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4 2014 Young Revolution _ Ion Art gallery, 싱가포르
2014 더블로직_ 스페이스 K 광주
2013 아티스트 세대전: 원로에서 중견, 그리고 신진으로 _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2013 대구아트페어_ 대구전시컨벤션센터
The Sounds of Korea _ 주중 한국대사관, 베이징, 중국
2013 Near and Dear objects _ Art On, 싱가포르.
2013 KIAF 한국국제아트페어_ 코엑스
2013 KOREAN ART SHOW 2013 _ 휴스턴, 미국
2013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_ 콘레드호텔
2013 4인전_ 갤러리 우, 부산
2013 Variations on Canon _ Coohausart, 뉴욕, 미국
2013 Four Multiplicities _ Emoospace, 뉴욕, 미국
2013 Affordable art fair _ Metropolitan Pavilion, 뉴욕
2013 화랑미술제 _ 코엑스
2013 탄생 誕生·BIRTH _ 양평 군립미술관
2013 2013 PYO project _ 표갤러리 사우스
2013 SPACE-SCAPE _ 롯데갤러리 일산
2012 Artistic Period _ 인터알리아
2012 Mimesis의 역습 _ 아다마스253 갤러리
2012 Brand New-소장가치전 _ Gallery Eugene
2012 제22회 청담 미술제 _ 살롱드에이치
2012 기억의 장소 - 김병주, 황성태2인전_ 백자은 갤러리
2012 Untitled 2 _ 최정아 갤러리
2012 괄호 展-공간의 기록 _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The Blue Wind 젊은작가콜렉션전_ 진선갤러리
2012 서울리빙디자인페어하나금융그룹아트라운지특별전 _ 코엑스
2012 The Art of Display _ 유진갤러리
2011 ART EDITION _ SETEC 전시장
2011 2011 Become We_ 옆집갤러리
2011 On.Plan.Make._ 텔레비전 12

-
- 2011 多重感覺_ 사비나 미술관
 - 2011 "Charade" _ 리안갤러리, 대구
 - 2010 테크놀로지의명상 - 철의 연금술_ 포항 시립미술관
 - 2010 DOORS ART FAIR 2010_ 임페리얼 펠리스호텔
 - 2010 Off the map, 김병주 한조영2인전_ 갤러리 포월스
 - 2010 흔적의 발견 _ 대안공간 총정각
 - 2010 프리스타일: 예술과 디자인의 소통 _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2009 KOREA TOMORROW 2009 _ SETEC 전시장
 - 2009 '2009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호흡의 지평' _ 태화강 둔치, 울산
 - 2009 NanjiRelay 전 _ 난지갤러리
 - 2008 쿤스트독기획 공모전 "우문현답" _ 쿤스트독갤러리
 - 2008 2008 흥제천공공미술 프로젝트-도시얼굴만들기-
 - 2007 POSCO Steel Art Award _ 포스코 갤러리
 - 2007 10piston caliper _ 숲 갤러리
 - 2006 보헤미안 스페이스II _ 아르코미술관
 - 2005 제4회 시사회전 _ 대안공간 팀프리뷰